

해남군, 옥천·계곡지구 광역상수도 본격화

국비 등 79억 확보...100억 투입 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

“2027년 현산면 등 전 지역 안정적 맑은 물 공급 가시화”

해남군이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을 위한 광역상수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해남군은 옥천·계곡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을 위한 국도비 79억원을 확보, 광역상수도 공급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총사업비 100억원을 투입하는 옥천·계곡지구 생활용수 공급 사업은 31.5km의 배수관을 설치해 광역상수도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오는 2024년 기

본 및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옥천·계곡면은 해남군에서 유일하게 상수도가 연결되지 않은 지역이다. 이번 사업으로 가뭄시 발생하는 식수난 등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해남군은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관내 전 지역에 공급될 수 있도록 상수도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삼산·화산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241억원을 투입, 상수관로 매설을 완료하고 현재 마을별 지선관로 설치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또 현산지구와 옥천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내년 완공된다. 현산지구는 현산 구시리·일평리 구간 3차분이 준공됐으며, 옥천면 농공단지 일대와 주변마을에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한 옥천지구 사업은 옥천 배수지를 설치 중이다.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현산면 지역 15개 마을에 광역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약해 추진하고 있는 현산면 물 복지 확대사업도

올해 준공할 예정이다. 계곡면 상수도 공급을 위해 202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옥천·계곡 간 광역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 사업에 190억원을 확보한 가운데 실시설계 완료 후 올해 6월 공사에 착공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마무리되는 2027년이면 해남군 전역에 광역 및 지방상수도를 통한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주민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맑은 물 공급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유학생 꼭 알아야 할 범죄 치안 유형은?

영암경찰, 중국 출신 등 교육

영암경찰서(서장 김종득)는 최근 세한대학교 구암관에서 유학생 350여 명을 대상으로 범죄 예방 교육을 했다. 교육은 ‘유학생이 꼭 알아야 하는 범죄 치안 유형’이라는 주제로 진행했다. 중국과 튀르키예, 동티모르, 체코 출신 세한대학교 유학생 350여 명이 교육에 참여했다. 이들은 ‘참여치안’의 하나로 일반 범죄·마약·사기·도박 등 범죄치안 유형을 익혔다. 최근 유학생들의 국내 유입이 늘면서 외국인 범죄 발생은 증가하는 추세다. 사전에 범죄 분위기를 차단하고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영암경찰은 자체 제작한 교육 자료를 활용해 알기 쉽게 범죄 예방 분위기 조성해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종득 서장은 “영암군은 지역 유학생을 포함해 외국인이 전남에서 가장 많은 지역”이라며 “이번 교육을 발판 삼아 내·외국인이 바르게 더불어 살아가도록 참여치안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진도군 ‘우리동네 영웅’ 1호 김동명씨 선정

국가유공자·보훈가족 재조명...청소년 취재단 영상 제작

진도군이 국가유공자를 재조명하기 위한 ‘우리동네 영웅들’ 1호에 김동명(93·진도군)씨를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우리동네 영웅들’은 진도군이 국가유공자 인식 개선 사업의 하나로 지역 청소년들과 함께 추진하고 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희생과 헌신으로 대한민국을 지켜낸 영웅들을 재조명하기 위해 마련했다. 진도군 ‘1호 영웅’에는 6·25 참전 유공자인 김동명씨가 선정됐다. 석교중학교 학생 취재단은 김씨를 찾아 그의 전쟁 경험담을 담은 영상을 제작하고 있다.

이들은 김씨가 미래 세대에 전하고 싶은 이야기와 여전히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향한 위로 영상에 담았다. 학생들은 이달 중 진도군 공식 유튜브와 소셜미디어(SNS)에 완성된 영상을 올릴 예정이다. 진도군 주민복지과 관계자는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을 지역민에게 알리고 보훈 문화 확산에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매달 우리동네 영웅들을 발굴해 국가에 희생하고 헌신한 국가유공자들이 예우받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kwangju.co.kr



석교중학교 학생들이 진도군 ‘우리동네 영웅들’ 1호에 선정된 김동명(가운데)씨를 찾아 6·25 참전 경험담을 듣고 있다. <진도군 제공>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주민 보금자리 마련 앞장서는 지자체들

목포시, 도시재생 공공임대 만족도 높아

옛 광장오피스텔 리모델링 66호 공급...철거이주민·청년 세대 등 입주

목포시가 마련한 도시재생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 안전한 보금자리 마련에 기여하고 있다. 목포시는 서산동에 위치한 도시재생 공공임대주택 66호에 대한 공급을 오는 12월 말까지 모두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시재생 공공임대주택은 도시재생 사업으로 발생한 철거이주민과 주거취약계층 등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비 51억원을 투입해 옛 광장 오피스텔(서산동 13-2)을 새롭게 고쳐 지난 8월 준공했다. 각 호실(전용면적 : 32㎡)은 보증금 200만원과 월 임대료 10만원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했다. 1~4차에 걸친 입주자 모집으로 현재까지 모든 공급세대가 임대차 계약 체결을 완료했거나 계약을 체결할 예정으로 늦어도 내년 2월 초까지 모든 세대가 입주 완료할 예정이다. 모집 완료된 입주자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서 철거이주민이나 주거취약계층, 청년 세대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명숙 도시재생과 재생시설팀장은 “거주자



목포시 서산동 도시재생 공공임대주택.

불안정한 철거 이주민과 주거 취약계층은 물론, ‘청년이 다시 찾는 큰 목포’의 초석이 될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한다는 데 큰 의미를 두었다”며 “목포시 전역에 지속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진행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고안락한 보금자리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

지역예술인 위한 ‘영암 예술기획학교 YAP!’ 개최

영암문화관광재단, 12~13일...공연·시각·문학 분야 역량 강화

영암문화관광재단이 12~13일 가야금산조기념관 실내 공연장에서 지역예술인을 위한 ‘영암 예술기획학교 YAP!(YEONGAM-ART-PLAN)’을 연다. 이번 교육은 공연예술, 시각예술, 문학분야 등 예술인들이 예술 현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했던 문서 기반의 기획 방법과 지역자원을 활용한 창작과 다원예술 분야의 확장을 위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다. 12일에는 전고필 재단 대표이사의 ‘지역 문화예술 기획 키워드 발굴’, 정민통 광주북구문화의집 관장의 ‘예술인의 기획 역량과 지원 사업의 대응’ 등 주제강연이 열린다. 13일 장르별 역량 강화에는 정찬일 놀이패 신명

대표의 ‘공연 활성화를 위한 기획서 작성’, 김민지 산수씨리 큐레이터의 ‘시대와 조응하는 시각예술 기획서 작성법’, 고영직 문화평론가의 ‘문학창작 활성화를 위한 기획서 작성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된다. 이번 교육은 영암에 활동 기반을 둔 문화예술 창작에 관심 있는 예술인과 예비·신진 문화예술 기획자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조소영 영암문화관광재단 PD는 “예술인들의 창작기반 마련을 위한 각종 공모사업이나 지원사업, 레지던스 지원사업들이 많은데 예술인들이 이런 기회에 적극 참여하고 활동 기반을 확장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완도군 공익 직불금 92억원 7천농가에 지급

완도군이 올해 기본형 공익 직불금 92억원을 7000여 농가에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소농 직불금과 면적 직불금으로 나뉜 공익 직불금은 오는 13일부터 차례대로 지급한다. 농가당 120만원씩 지급하는 소농 직불금은 총 4740가구 57억원을 받는다. 농지 면적에 따라 지급하는 면적 직불금은 2336가구에 35억원을 준다. 공익 직불 사업은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유지, 식품 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쌀 중심의 농정 전환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한 농업인에게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농지의 형상·기

능 유지, 교육 이수 등 17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으면 5~20% 감액된 금액을 받는다. 완도군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농업 경영체에 등록된 농가·필지를 대상으로 등록·신청을 받았다. 지난 5월 등록증을 나눠준 뒤 11월 현장 조사와 준수사항 이행 점검, 대량 검증 등을 통해 지급 대상과 금액을 확정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기름, 장마, 폭염 등 기상이변과 작황 부진 등으로 인한 어려움에도 온 힘을 다해 농업을 이끌어 준 농민들에 감사를 전한다”며 “공익 직불금이 경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 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영암군 ‘귀향인 주택수리’ 마더하우스 1호 완공

5000만원 들여 빈집 리모델링 2·3호 진행...내년 사업 본격화

영암군이 신북면 수현마을에 귀향인의 보금자리 주택 ‘마더하우스’ 1호를 완공했다. 마더하우스는 ‘어머니와 함께 살던 고향’이란 의미를 담아 영암군이 ‘귀향인 주택수리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주택의 이름이다. 영암군은 5000만원을 투입해 수현마을 한 빈집 방·부엌·화장실 등을 새 단장했다. 마더하우스 1호점의 주인공은 김금순 씨이다. 김 씨는 영암에서 태어나 살다 결혼과 함께 서울로 떠났다. 대학에서 축산업을 공부한 아들이 영암에서 축산업을 결심하자, 남편·아들과 함께 지난 2019년에 귀향해 빈집을 수리해 살아왔다. 올해 영암군의 마더하우스 사업 소식을 듣고 지원했고, 이번에 첫 마더하우스 주인이 됐다. 김씨는 “새로 태어난 집을 보며 가족이 다 기뻐하고 있다”면서 “잘 가꾸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영암 마더하우스 1호.

영암에서 살겠다”고 말했다. 영암군은 영암읍 2호점, 군서면 3호점 마더하우스의 빈집 리모델링 공사도 진행하고 있다. 내년 본격화될 마더하우스에 대한 자세한 안

영광군, 청년 창업농 경영실습 임대농장 개소

최장 3년 임대 가능

영광군 군서면 만곡리에 청년 창업농이 경영 실습을 할 수 있는 임대농장이 문을 열었다. 영광군은 최근 ‘청년 창업농 경영 실습 임대농장 개소식’을 열었다고 11일 밝혔다. 지역 청년이라면 최장 3년 동안 농장을 빌려 경영 자립과 성장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임대농장은 영농 경험이 부족한 청년에게 농업시설을 빌려주어 우수한 농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운영 경험, 기술 등 영농창업에 필요한 기회를 제공한다. 농장은 1278㎡ 규모 연동형 스마트 온실 1개 동으로 조성했다. /영광=김창환 기자 kcw@kwangju.co.kr

지난 4월 착공해 올해 2월 준공했다. 농장을 빌리려면 만 18세부터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영광지역의 청년 농업인 1명이 농장 인차 계약을 맺어 농사를 짓고 있다. 임대농장에서는 지난 9월 심은 딸기 농사가 한창이다. 이달 초순 처음 딸기를 수확했다. 영광군 관계자는 “시설재배는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 성공하기 위해서는 많은 경험과 비결이 필요하므로 임대농장 운영이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청년이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광=김창환 기자 kcw@kwangju.co.kr